



스페인 시장의 예상치 못한 사태: 대정전

Guillem Burset

2025년 5월 30일 (3일 전)

우리는 4월 28일 월요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여파를 겪으며 5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스페인 양돈 산업에 미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고 매우 심각하며 지대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위험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많은 기업들은 정전 발생 시 실행할 수 있는 플랜 B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선진국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전의 원인이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주장하는 것조차 무모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사례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어두웠던 날, 도축장에서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마리의 도축된 돼지들이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끔찍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고, 많은 경우 수동으로 사료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는 6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네덜란드 Nutreco의 자회사였던 **통합업체 Inga Food가 스페인의 축산 분야 3대 기업인 Incarlopsa, Costa Brava Mediterranean Foods, 그리고 Vall Companys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nga Food는 8만 5천 마리의 모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멈출 줄 모르는 축산 분야 집중 현상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축산 사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흔히들 말하듯,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달의 뉴스입니다.

정전이 발생한 주에는 목요일이 공휴일(스페인의 노동절인 5월 1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과 부활절이 매우 최근이었던 사실로 인해 도축 지연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평균 도체 중량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완전히 해결될 예정이지만, 여름 이전에 최종적으로 증가할 시점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스페인의 5월 평균 도체 중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주 단위 사육 부족 현상(도축 가능 용량의 고질적인 초과로 인한)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과도한 중량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중량은 농가에게는 매력적이지만(저렴한 사료를 통해 생산량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축장의 상업화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축된 도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체중 범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어떤 관세를 어떤 국가에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입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제 돼지고기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U 내에서도 국가 간 가격 차이가 여전히 상당 하지만, 극심한 차이는 줄어들었습니다. 덴마크는 갑자기 도축 가격을 킬로그램당 20센트(연말 보너스에서 공제됨) 인상했습니다. 독일은 21일 수요일, 도축 가격이 킬로그램당 10센트나 급등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독일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따라 시장이 상승했지만, 22일에는 상징적인 0.5센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제의 가격(+0.80센트)은 치열하고 거대한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축장은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또 잃을 수도 없으며, 농가는 지금 당장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양돈 산업에서 유럽 연합은 단일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연합의 양돈 산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별 회원국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두수가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중부 유럽의 바비큐 시즌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이 계절 소비에 필요한 고기는 단 1kg도 부족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정체된 상황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 수출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일본의 삼겹살 구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도축장은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돼지 도축과 도축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논평을 유명하고 존경받는 브라질 작가인 마리오 키타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정한 문맹자는 읽는 법을 배웠지만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버셋